



## 상품 · 신체 등 어디에나 전사

대~한민국 짹-짹-짹-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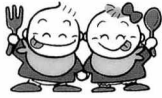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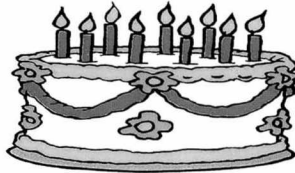
지난해 월드컵 열풍과 함께 얼굴이나 팔뚝에는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한국팀의 승리를 염원하기 위해 판박이 또는 문신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나 슈퍼마켓 등에 가보면 껌이나 과자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판박이를 사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있는 광경도 자주 볼 수 있다.

판박이는 문신처럼 자신의 몸에 붙이는 문신스티커가 있는가하면 자신의 물건에 원하는 판박이 모양을 대고 굽거나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나만의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판촉물에 그림이나 글씨를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박이나 문신스티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나 이것을 전사인쇄라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전사인쇄는 강압전사, 물전사, 열전사, 열승화전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아무런 기구가 없어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강압전사와 물전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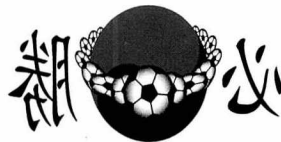
전사인쇄는 종이나 필름에 인쇄한 그림을 도자기 · 유리 · 금속 · 플라스틱 · 신체 등의 표면에 전사하는 인쇄방식이다. 전사지는 인쇄잉크나 안료를 사용해 백상지와 같은 대지에 풀칠을 한 다음 그 위에 그림이나 글씨를 인쇄한 것이다.

전사인쇄는 종이나 필름에 인쇄한 그림을 도자기 · 유리 · 금속 · 플라스틱 · 신체 등의 표면에 전사하는 인쇄방식이다. 전사지(轉寫紙)는 인쇄잉크나 안료(顔料)를 사용해 백상지와 같은 대지(臺紙)에 풀칠을 한 다음 그 위에 그림이나 글씨를 인쇄한 것이다. 단지(單紙)와 얇은 종이를 두 겹으로 한 복지(複紙)의 전사지가 있으며



▲ 강압전사 인쇄물들

▼ 물전사 인쇄물들



〈대야인쇄의 여러가지 전사인쇄물들〉

평판인쇄, 그라비아인쇄, 실크스크린인쇄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국내에 전사인쇄가 알려지게 된 것은 타자기를 사용하던 시절 공문 등을 작성할 때 일부 오타가 있을 경우에 전부 다시 타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자 대신 글자가 인쇄돼 있는 글자판박이를 대고 원하는 글자를 꺾어서 새겨 넣어 쉽게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이것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면서 전사방법과 인쇄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압전사는 예전에 글자수정을 했던 것처럼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원하는 곳에 대고 꺾어서 전사하는 방법이다. 이 강압전사의 인쇄방법은 이형지(주로 필름)에 투명잉크를 바르고 도안된 그림이나 글씨를 인쇄한다. 이 때 화면은 거꾸로 인쇄를 해야 전사시켰을 때 바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인쇄된 위에 점착제를 바르고 보호테이프를 붙여 절단하고 포장한다.

이 강압전사는 곡면도 전사가 가능하고 글자나 선이 작아도 표현이 쉽기 때문에 적은 수량의 판촉물이나 개인 소지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전사는 흔히 문신스티커라고도 잘 알려져 있으며, 전사방법은 보호테이프를 떼고 원하는 곳에 물을 적셔 대고 있으면 전사가 된다. 인쇄방법은 종이 위에 녹말가루를 바르고 투명잉크로 인쇄한 다음 그 위에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를 인쇄한다. 이 때 화면은 거꾸로 인쇄하고 그 위에 점착제를 발라 보호테이프를 붙여 절단, 포장한다.

이밖에도 강압전사와 물전사와는 달리 스티커와 비슷한 형태의 전사방법도 있다. 이것은 인쇄물만을 그냥 떼어서 붙이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스티커처럼 보이지만 인쇄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스티커는 점착테이프에 인쇄를 해서 절단 후 테이프째 떼어 붙이는 것이지만 이 전사방법은 이형지 위에 점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두툼하게 인쇄를 해서 점착제와 잉크만을 떼어서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입체감도 살고 점착력도 향상되지만 전사하기 전에는 인쇄물이 잉크와 점착제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손톱을 비롯해서 어떤 곳든 사용이 편리하다.

〈윤재호부장〉